

사회



“북부노인건강타운 오세요” 다음달 1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북구 효령동 북부노인건강타운이 북구·광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북부노인건강타운은 8월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강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정까지 문 여는 보육시설
서구, 13곳 추가... 39곳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에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8일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급호·풍암동 등 권역별로 지정된 기존의 26곳 외에도 다음달 1일부터 13곳을 추가로 지정해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실시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400원으로, 대상은 만 4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중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을 포함하한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다. 가구별 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경우 월 60시간까지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 1천153개 보육시설 중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73곳이며, 휴일에도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7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보육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자치구별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이 필요에 따라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희망근로 비리 남구 공무원 넷 입건

보름만 일해도 한달 급여 주고 기부금 거둬

‘광주시 남구 희망근로 기부금 사건’(본보 1월 21일자 6면)은 관리·감독 절차가 사실상 전무한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 추진이 구청 담당 과장에 의해 전권처리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희망근로자의 근무일지를 조작해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김모(54·5급)·강모(52·6급)씨 등 남구청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11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인 사회복지법인 ‘효 사람 노노(老老) 봉사단’ 소속 신모(70)씨 등 9명의 근무일지를 꾸며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참가 근로자들이 4~5명씩 2개 조로 나눠 한 달 평균 10일~15일가량 일한 사실을 알고도 한 달간 일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가 근로자들은 인건비 90만 원 중 매달 20만원씩, 1천100만원을 남구청장이 대표로 있는 남구 한 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 등은 희망근로 사업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근무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업무 지침상 각 사업장별로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 참가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구청의 인력난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구청의 경우 희망근로 참가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을 팀장으로 선정해 사실상 관리감독을 맡기고, 담당 공무원은 한 달 평균 한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게 전부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희망근로 사업 추진이 구청 담당 과장에 의해 전권처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 등은 경찰에서 “전혀 몰랐다. 모두 허위 진술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형분재, 희귀 선인장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을 보인다. 특히 관람객들을 위한 거실 및 테이블 장식 등에 필요한 꽃 감의, 체험 프로그램, 무대이벤트 등도 마련됐으며,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화훼수출상담회도 함께 개최된다. 또 DJ센터는 인형극, 마술, 꽃씨 나눠주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장애인,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꽃의 도시 광주로 오세요”

26일부터 DJ 센터서 ‘광주봄꽃박람회’

‘2010광주봄꽃박람회’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DJ 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광주봄꽃박람회는 ‘꽃과 음악’, ‘꽃과 여성’, ‘꽃과 레저’를 주제로 20개의 주제정원과 화훼 관련 신제품 및 기술 업체가 참

여하는 100여 개의 홍보부스, 체험 프로그램, 무대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빛장미’, ‘무지개장미’, ‘황금장미’, ‘아광장미’, ‘은도장미’ 등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장미가 전시되는 ‘장미특별관’과 식용식품 모듬정원,

들리는가! 오월의 합성
보이는가! 민주의 햇불

5·18 30주년 행사 슬로건 확정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 행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5·18 30주년 행사 슬로건을 ‘들리는가! 오월의 합성, 보이는가! 민주의 햇불’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준비위는 지난달 18일까지 접수된 250여 작품을 심사해 당선작(1명), 후보작(2명), 참가상(20명)을 선정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5·18 30주년 행사 기조와 방향에 맞는 내용을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의 출범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오는 16일까지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함께할 대학생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19일부터 30일까지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5·18 기념행사 및 각종 사업 등에 투입돼 서른살을 맞는 오월 민중항쟁과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해외 인턴 활동 및 각종 국제협력 사업에 파견의 기회가 제공되며, 자원활동가 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위탁역장 11명 공모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일 “지하철 상무역 등 민간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4개 역에 대하여 운영사업자(위탁역장) 11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들 중 인접 2개 역을 1명의 역장이 총괄 관리하는 2역 1역장제를 6

개역에 도입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연간 1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 공고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공사 홈페이지(http://www.gwangjusea.com) 등을 통해 실시하며 접수는 17일~18일 양일간 시행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오는 4월1일부터 2년간 해당 역을 위탁운영하게 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2분, 해질 18시 34분, 달돋이 02시 46분, 달질 12시 33분. 낮엔 비, 밤엔 눈. 흐리고 낮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바람도 거세게 불겠다. 광주 비/눈 3/7°C, 목포 비/눈 3/7°C, 여수 비/눈 4/7°C, 완도 비/눈 3/8°C, 구례 비/눈 2/6°C, 애남 비/눈 3/8°C, 장흥 비/눈 3/8°C, 고흥 비/눈 4/7°C, 순천 비/눈 3/6°C, 영광 비/눈 2/6°C, 진도 비/눈 3/8°C, 진주 비/눈 2/6°C, 남원 비/눈 1/6°C, 옥산도 비/눈 3/5°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광주 꽃샘추위 눈발

9일 광주·전남은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눈으로 바뀌어 꽃샘추위로 이어지겠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는 11일 낮부터 누그러져 12일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낮에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뀔 것”이라고 8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0mm, 예상 적설량은 1~5c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6~8도

로 전날보다 다소 낮았다. 10일 광주의 기온은 영하 2도~영상 4도로 푹 떨어지겠으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종일 쌀쌀하겠다. 이번 추위는 11일 낮부터 점차 풀리다가 12일부터는 평년기온(10.9~11.7도)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9일부터는 바람이 거세지고 물결도 높아져 풍랑특보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권 4개 업체

다이옥신 과다배출

광주·전남 등 호남권역 4곳의 업체가 다이옥신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800여곳 가운데 100곳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

남 등 호남권역 업체 4곳을 포함 전국 14곳의 업체가 다이옥신 배출 농도 기준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 호남권 20곳 중 4곳(폐기물 처리업체 1곳, 일반 사업장 3곳), 수도권 30곳 중 3곳, 충청권 20곳 중 2곳, 영남권 30곳 중 5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업종별로는 의료폐기물 시설 3곳, 폐기물 처리 3곳, 일반사업장 1곳 등이 적발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기보청기. 서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기스타·세계보청기. 1588-8449/081-22-9100. 02-23-5000